

‘글쓰기’가 고민이라면 늪에 빠져보자

시인 철학자 최재목 교수의 인문학적 철학적 글쓰기에 관한 사유



시인이자 철학자인 영남대 철학과 최재목 교수는 글쓰기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늪’을 보면서 사색과 글쓰기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왜 늪일까? 늪은 온갖 만물을 받아들여 맑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낸다. ‘늪’은 더러운 것을 맑고 아름답게 정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죽으면서 살았고,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며, 파괴되면서 생성되는 곳이다.

그가 통합·통섭의 의미로 사용하는 ‘늪’은 긍정적 맥락에서 다시 발굴하여 인문학, 철학, 글쓰기,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글쓰기와 상상력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늪〉은 일반적이고 교과적인 글쓰기 지침서와 다르다. 최 교수가 오랫동안 사색을 통해 지향해온 불교·인문학적 사고와 철학에 바탕한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와 방법을 엮은 책이다.

저자가 말하는 글쓰기 방법인 ‘늪’의 본질은? 바로 나와 모든 생명이 함께한다는 ‘연기적(緣起的)’이며 세계를 관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화엄적(華嚴的)’ 글쓰기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함께 하는 마음을 갖는 글쓰기라는 것이다.

또 ‘나’와 ‘글’이라는 어떤 실제(實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나를 철저히 ‘관계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연기적 관점의 글쓰기를 말한다. 이것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침투하는 상즉상입(相即相入), 원만히 하나가 되어 결립이 없는 원융무애(圓融無礙)의 글쓰기라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늪의 글쓰기, 연기적 글쓰기는 최 교수의 시 ‘봄날’에 잘 나타나 있다.

펜을 들면 글쓰고 싶은 욕망이 금새 사라져 버린다. 왜 그럴까? 바로 지적·생태적·생명적 상상력의 근원이 약하기 때문이다. ‘온갖 만물을 받아들여 맑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늪’. ‘늪’은 더러운 것을 맑고 아름답게 정화하는 공간이다. 죽으면서 살았고,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며 파괴되고 생성되는 곳이다.

겉멋진 길들에게 미안하다
꽃피지 못하는 저 풍들의
뿌리에게 미안하다
언 돌과 같은 흙위로 무심히 내린던 내 발걸,
네 영혼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가만히 홀로 있어도, 난
네의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닿아 있었구나

인문학적 상상력의 유비쿼터스(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 교수는 ‘온몸으로’ ‘온갖 사물과 지식을 총동원한’ 글쓰기와 상상력 증진은 물리적 공간에 펼쳐진 각종 공간의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 법계도’나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읽어도 뜻이 통하는 ‘선기도(璇機圖)’의 발상법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불교에서 인문적 지성의 흔적과, 혼돈과 질서를 결합한 삶의 방식을 찾는다. 그는 사람, 동물, 식물 뿐 아니라 돌, 물, 파도에 밀려나는 모래알의 밑없는 아픔까지도 늪에서 발견하는데 이를 철학, 글쓰기,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유비쿼터스 지식이나 문화로 재통합, 재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명의 미학, 발우공양(鉢)의 미학, 미와 예술지향인 ‘건달’의 재발견, 편집개념의 재해석 등도 수록하고 있다.

“모든 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생명과 깨침의 글쓰기”라고 강조하는 최재목 교수는 “통합(統合), 통섭(通攝), 융합(融合), 융즉(融即)인 유비쿼터스(Ubiquitous) 형태로 문화나 지식이 재통합되고 재구축되어감으로써, 글쓰기와 발상법이 회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글쓰기와 상상력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늪
최재목 지음
영남대출판부 | 1만원

네티즌강추

매 순간 원더풀이라고 외치며 살고 있습니까

원더풀 올라 카린 린드크비스트 지음, 유정화 역, 노블마인
그녀, 올라 카린 린드크비스트는 스웨덴의 유명한 방송 앵커로서 그녀의 삶은 승승장구였으며, 늘 힘이 넘쳤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소화해냈다. 끊임없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이라는 별이 지나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 병에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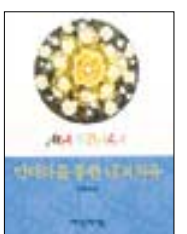
병이 진단됨에 따라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고, 바빠서 돌아볼 수 없었던 소중한 주위를 되돌아보게 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한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녀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나가는 길을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돌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삶에 웃으며 충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녀에게 삶은 죽는 순간까지도 ‘원더풀’이었다. 매 순간순간이 삶이었으며, 그 삶에 충실했다. 그랬기에 그녀의 죽음은 보는 이들에게 더 안타깝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녀의 어린 아들 구스타프의 말처럼 1초마다 한 번씩 산다. 그 1초마다 ‘원더풀!!’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waytogohr, lifelog.blog.naver.com/waytogohr)

내면의 나를 찾아 떠나는 만다라 여행

만다라를 통한 내적치유

김영미 지음, 해외달을 그리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상처 없는 삶을 원한다. 그렇다면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안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안의 마음상한 체험들 계속 닦아내는 그 염증 부위를 치료하여 나를 해방시켜야 한다. 나의 망가진 자존감 때문에 분노 아니게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부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김영미 교수의 만다라 300여점이 수록된 이 책은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직접 채색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원속에 만다라(원상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신의 내면속으로 여행을 시작하거나 내면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음이 가는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내안의 여행을 해보는 것이 좋다. 동적으로 하는 여행보다 정적으로 해보는 만다라 그리기 여행은 더욱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집중적인 힘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다
몇가지색으로 만들런지 누구도 알수 없다. 나를 찾아 떠나는 향기 가득한 만다라 여행을 즐겨보자.
(정현숙, c-painting.com/sub/care.htm)

책속의 밑줄긋기

○... 칭찬거리는 칭찬하는 사람의 인목에 달려있는데 여기에 요청되는 것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에게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숨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칭찬에 이런 창의성이 적용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칭찬을 할 수 있다. 창의성은 훈련과 연습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현상을 다르게 보려고 애를 쓰며,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점차 사고에 유연성이 더해지고 창의적인 칭찬거리를 찾아내게 된다. 창의적으로 칭찬거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서 야단거리를 칭찬거리로 바꾸는 연습을 몇 가지 해보자. 예를들면 머리는 좋은 놈이 공부할 안 한다 → 공부할 안 하고도 성적을 그 정도 유지하니 대단하다.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한다 →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답임이 이끌어 가는 학습상당〉 본문 53쪽에서, 박성희 지음, 학지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포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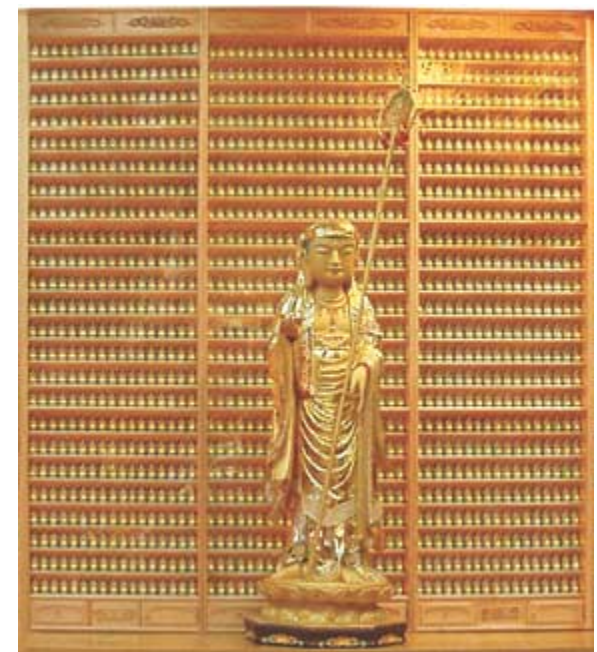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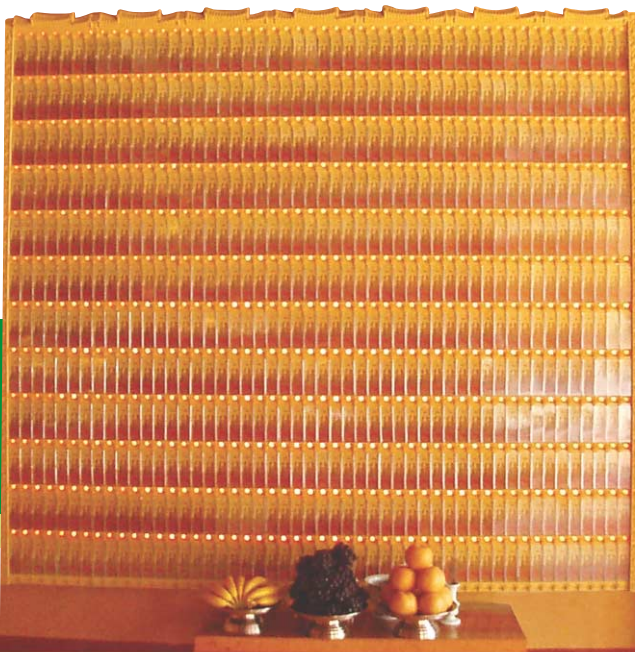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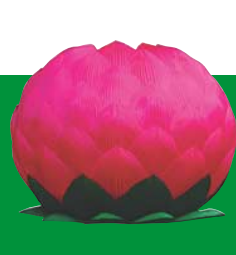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종등



팔각불속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불속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